

제거주의와 인지적 자살 논변*

Eliminativism and the Cognitive Suicide Argument

백 도 형**
(Do-Hyoung Back)

요약 나는 이 글에서 인지적 자살 논변이 제거주의를 논박하는 데에 성공하지 못함을 지적한다. 그 논변은 제거주의의 중요한 핵심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하고 있다. 마지막 절인 3절에서는 내가 생각하는 제거주의의 핵심을 지적하고 이러한 지적의 토대 위에서 제거주의에 대해 내가 가지고 있는 비판 논변을 전개하겠다.

주제어 제거주의, 인지적 자살, 믿음, 명제태도, 의미론, 실재론, 지향 심리학, 생가론, 베이커(Lynne Rudder Baker), 처칠랜드(Paul Churchland)

Abstracts In this article, I show that the cognitive suicide argument does not succeed in refuting eliminativism. The argument misses an important aspect of eliminativism. In Sec. 3, the last section, I will suggest the aspect of eliminativism and, on the basis of it, will develop my criticism against eliminativism.

1.

어떤 점에서 본다면 제거주의는 심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인 듯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니다. 심신 문제에 관한 지금까지의 논의들이 제거주의를 환영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을 선택하는 대가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제거주의는 가장 극단적인 입장이다. 바로 그 점이 제거주의를 가장 일관성 있고 분명한 입장으로, 또한 가장 손쉬운 선택지인 것처럼 보이게 하지만, 최근까지 심신 문제에 관심 갖는 철학자들 중 대부분은 제거주의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공유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거부감은 제거주의에 대한 직접적인 논박보다는 주로 제거주의의 공격 대상이자 인간 사유의 중요한 상식적 배경을 이루는 지향 심리학에 대한 방어로 표출된다.¹⁾

지향 심리학에 관한 방어로써가 아닌 제거주의 자체에 대한 거의 유일한 직접 논박이 바로 인지적 자살 논변이다. 이 논변에 따르면 제거주의는 실천적으로 비정합적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기부정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논변의 내용은 린네 베이커(Lynne Rudder Baker)의 논문인 “인지적 자살(Cognitive Suicide)”(1988)²⁾에 잘 드러나 있다.³⁾ 이 글에서는 그 논변이 언뜻 보기엔 강력하고 결정적인 것처럼 보이고 또 제거주의의 중요한 한 측면을 잘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알려진 것만큼 그리 강력한 비판이 되지 못함을 논하겠다. 그러나 그렇다고 내가 제거주의를 옹호하려는 것은 아니고 단지 인지적 자살 논변이 제거주의의 핵심을 제대로 짚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려는 것이다. 마지막 절인 3절에서는 내가 생각하는 제거주

* 이 논문은 2002학년도 숭실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소속기관 : 숭실대학교 철학과
연구분야 : 철학 - 심리철학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5동 1-1 숭실대학교 철학과 (우: 156-743)
전화번호 : 02-820-0376
팩스번호 : 02-824-4382 (숭실대학교 인문대학)

1) 예컨대 [8], [9] 등을 볼 것. 이 글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중점적으로 다루지는 않겠다. 하지만 내가 예전의 다른 글들 [1], [2], [3] 등에서 언급한대로 보편자로서의 속성의 실재 문제가 심신 문제와 관련된 이런 여러 나머지 문제들을 바라보는데 새로운 조명을 제시해 줄 것 같다.
2) 논문 [5]
3) 이러한 베이커의 논변은 [4]에도 나와 있음. 그러나 사실은 이 반박은 그 전부터 잘 알려져 있던 제거주의의 비판 논변으로 처칠랜드는 그의 저작 [7]과 1981년에 출판된 그것의 초판, 그리고 [6]에서도 언급하면서 응수하고 있다.

의의 핵심을 지적하고 이러한 지적의 토대 위에서 제거주의에 대해 내가 가지고 있는 비판 논변을 전개하겠다.

2.

우선 제거주의가 인지적 자살행위라는 인지적 자살 논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지향 심리학의 핵심적인 특징은 내용(믿음, 의도 등)에 의해 정해지는(identified) 태도를 귀속하는 것이다.
- 2) 만일 지향 심리학이 거짓이라면, 신경 과학에 의해 대체되어야 하고, 어느 누구도 결코 내용에 의해 정해지는 믿음 혹은 다른 태도를 가지지 않는다.
- 3) 그러나 어느 누구도 아무 것도 믿지 않는다는 것이 참이라면, 어떻게 믿음없는 주장이 있을 수 있는가에 관한 설명이 필요하고, 그러한 설명이 없다면 그 주장가능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요컨대 제거주의의 핵심 주장(단계 2)대로 지향 심리학이 거짓이라면, 우리가 믿음이니 의도니 하는 명제 태도들을 가진다는 말을 도대체 할 수 없게 된다. 그런데 인간에게 도대체 믿음이란 것이 없다면 2)와 같은 제거주의의 주장 자체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다. 제거주의는 믿음과 같은 지향 심리학의 용어는 거부하면서, 믿음없이 어떻게 주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에 관한 적절한 설명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제거주의의 주장은 자기 부정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제거주의자인 처칠랜드(Paul Churchland)는 이미 이에 대해 응수한 바 있다.⁴⁾ 그는 인지적 자살 논변이 선결되어야 할 문제를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그는 그 점에서 제거주의를 비판하는 인지적 자살 논변이 반생기론(反生氣論, anti-vitalism)을 비판하는 논변과 유사하다고 주장한다. 다음의 두 논변을 살펴보자.⁵⁾

[인지적 자살 논변]

제거주의를 주장하는 진술은 부호나 소리의 의미없는 나열에 불과하다. 그 나열이 일정한 믿음, 의사소통하려는 의도, 그리고 언어의 문법에 관한 지식 등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렇다. 그러나 만일 제거주의를 주장하는 진술이 참이라면, 그러한 표현 상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쟁점이 되는 진술은 부호나 소리의 의미없는 나열이 된다. 따라서 그것은 참이 되지 않는다. 따라

서 그것은 참이 아니다.

[반생기론에 대한 비판 논변]

반생기론자들은 생기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자기 반박적이다. 화자는 자신의 주장이 진지하게 여겨지도록 기대할 수 없을 때에만 진지하게 여겨지도록 기대할 수 있다. 왜냐하면 만일 그 주장이 참이라면, 화자는 생기를 가지지 않은 것이고 따라서 죽은 존재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만일 그가 죽은 존재라면 그의 진술은 이성과 진리를 결여한 의미없는 나열이다.

처칠랜드는 이 두 논변이 서로 평행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parallel)데, 반생기론에 대한 반박 논변인 두 번째의 것이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를 범하고 있으므로, 첫 번째 논변인 제거주의를 비판하는 인지적 자살 논변도 마찬가지로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베이커는 이러한 처칠랜드의 반박에 대해 위의 두 논변들은 다음과 같은 3가지 점들 때문에 서로 평행한 것이 아니라고 재반박한다. 그의 말을 한 가지씩 들어 보자.

첫째, 반생기론을 비판하는 논변은 이렇다. 반생기론의 입론은 그 입론이 거짓이라는 가정 위에서는 주장될 수 없다. 그러나 제거주의에 대한 비판 논변은 이렇다. 제거주의의 입론은 그 입론이 참이라는 가정 위에서는 주장될 수 없다. 전자는 분명히 선결되어야 할 문제를 요구하는 반면에 후자는 분명히 그렇지 않다.⁶⁾

즉 베이커의 요점은 이렇다. 반생기론에 대한 반대 논변은 반생기론이 거짓이라는 가정 위에서는 반생기론은 주장될 수 없다는 것인데 반해, 제거주의에 대한 반대 논변은 제거주의가 참이라는 가정 위에서 제거주의는 주장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자는 선결문제를 요구하지만 후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 이러한 베이커의 첫 번째 반박은 명백한 그의 실수이다.⁷⁾ 반생기론에 대한 반박 논변에

6) [5], p. 13. (필자 강조)

7) 원래 베이커가 이 논변을 처음 전개한 곳은 1985년 4월에 있었던 오벌린 콜로키움에서였고, 이 콜로키움의 내용이 [5]에 실려있다. 이 논변은 베이커의 저서 [4]의 134쪽 이하에도 재수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제시한 첫 번째 반박은 빠져 있다.

4) 주 3 참조.

5) [5], p. 13. (필자 강조)

의하면 반생기론이 주장될 수 없는 경우는 그의 지적처럼 반생기론이 거짓인 경우가 아니고 참인 경우였다. (위의 두 논변에서 강조된 부분을 주목하라.) 즉 생기론이 거짓인 경우에는 화자가 생기를 가지지 않는 것이 되므로 화자는 죽은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죽은 화자에서 나오는 진술은 무의미한 잡음들에 지나지 않게 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적어도 베이커가 지적했던 점에서는 두 논변은 애초부터 평행한 것이었다.

둘째, 두 경우 가장 비판자들은 그들이 서로 공유하고 있는 가정들에 있어서 상이함을 보인다. 반생기론자와 생기론자는 살아있음이 주장을 할 수 있는 필요조건이라는 것에 서로 동의한다. 반생기론자는 단지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한 설명에서만 다를 뿐이다. 반면에 제거주의자는 내용에 의해 정해지는 믿음 등 태도들이 주장을 하는 데에 필요조건이라는 그의 반대자의 견해에 일관되어 동의할 수는 없다. 제거주의자는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해 상이한 설명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그가 부정하는 것은 누구든지 믿음을 지닌다는 것이다. 제거주의자와 평행하려면 반생기론자는 죽은 자가 주장을 한다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반생기론을 비판하는 논변의 잘못은 그것이 제거주의의 비판 논변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⁸⁾

즉 베이커에 의하면, 반생기론자와 생기론자는 살아있다는 것이 어떤 주장을 하는 데에 필요조건이라는 것에 대해 서로 동의하는데 반해, 제거주의자는 믿음 등의 태도를 가지는 것이 어떤 주장을 하는 데에 필요조건이라는 제거주의 비판자의 생각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보기엔 이러한 두 번째 반박 역시 제거주의의 논점에 대한 충분치 못한 이해에서 비롯된 것 같다. 제거주의의 논점을 반생기론의 논점과 평행하게 다음과 같이 재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제거주의자도 X를 지님이 주장을 하는 데에 필요조건이라는 그의 반대자의 주장에 동의할 것이다. 제거주의자는 단지 X를 지닌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함에 있어서만 다를 뿐이다. 제거주의자는 X가 믿음 등 내용에 의해 정해지는 태도들이라는 그의 반대자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는 X는 아직은 알려지지 않은 최종 과학에 속한다고 생각한다.)⁹⁾

베이커의 세 번째 반박은 다음과 같다.

반생기론에 대한 비판 논변의 잘못은 제거주의에 대한 비판 논변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반생기론이 참이란 가정 위에서든 혹은 거짓이란 가정 위에서든 생기를 가지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반생기론자에게 죽었다는 혐의를 두는 것은 실수이다. 반생기론이 참이라면 생기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은 죽음에는 적절한 것이 아니요, 거짓이라면 생기론을 부정하는 잘못을 저지른 반생기론자는 생기를 지니고 있으며 결국 죽지 않고 있는 것이다.¹⁰⁾

나는 이러한 세 번째 반박도 두 번째 반박과 비슷한 문제점을 갖는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내가 제거주의자라면, 다음과 같이 덧붙이겠다.

마찬가지로 제거주의가 참이라는 가정 위에서든 거짓이란 가정 위에서든 믿음 등 내용에 의해 정해지는 태도들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제거주의자에게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혐의를 두는 것도 잘못이다. 제거주의가 참이라면, 믿음 등 내용에 의해 정해지는 태도들의 결여는 주장을 하지 않는다는 것에 적절한 것이 아니요, 거짓이라면, 지향 심리학을 부정하는 잘못을 저지른 제거주의자는 믿음 등 내용에 의해 정해지는 태도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결국 주장을 하는 것이다.¹¹⁾

3.

베이커가 이러한 비판들을 제시하면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이렇다. 제거주의는 믿음 등 지향 심리학이 다루는 명제 태도들을 거부하고는 있지만, 아직 명백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제거주의가 하

10) [4], p. 139 (베이커 강조).

11) 어떤 이는 이에 대해 처음의 반생기론과 제거주의의 두 논변에서 '주장을 함(making a claim)'과 '살아 있음(being alive)'은 내가 지금 제시한 것처럼 평행한 것이 아니었다고 꼬집을 지도 모르겠다. 그렇다면 그에 대해 나는 '주장을 함'을 'X를 가짐(having Xs)'으로 바꿀 수 있고 그렇게 바꿈으로써 처음의 두 논변이 평행한 것이었음을 보여줄 수 있다. 그러나 내 생각으로는 여기서 두 논변이 평행하다는 것으로 제시하려는 요점은 두 논변이 모두 선결되어야 할 문제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므로 그 점만 보일 수 있다면 두 논변의 각 항들이 서로 대응하고 있음을 반드시 ('주장을 함'을 'X를 가짐'으로 바꾸면서까지) 드러내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8) [5], pp. 13-4, 그리고 [4], p. 139.

9) [6], p. 19.

는 주장 자체는 명제 태도들을 전제로 해야 성립할 수 있는 것이므로, 자기 입장 내에서도 실천적 부정합성(practical incoherence)을 띠고 있으며, 결국 인지적 자살 행위에 불과하다.

그런데 2절에서 본 바에 따르면 제거주의를 비판하는 인지적 자살 논변과 반생기론을 비판하는 생기론자의 논변은 평행하다. 제거주의와 반생기론은 그것들이 각각 비판하고자 하는 지향 심리학과 생기론의 전제를 비판하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제거주의를 비판하려는 인지적 자살 논변과 반생기론을 비판하는 비판 논변은 지향 심리학과 생기론이 가지고 있는 전제를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생기론을 옹호하는 사람은 없다. 더 이상 과학의 정설이 아니다. 그것은 낡은 지식체계일 뿐이다. 하지만 생기론이 옹호되던 그 당시에 생기론의 논리 체계에 빠져 있는 입장에서 본다면 반생기론 논변은 모순을 범하고 있는 것처럼 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지향 심리학의 전제를 공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인지적 자살 논변을 바라본다면 제거주의가 인지적 자살이라는 모순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일 지도 모른다. 하지만 과학사의 뒤안길에서 사라져 버린 많은 낡은 이론체계들처럼 지향 심리학도 지식의 진보에 저항하는 낡은 생각일 지도 모른다. 그리고 과학사에 등장하는 지식의 진보사례를 살펴 보면 이와 같이 낡은 이론체계가 갖는 전제 자체가 무너짐으로써 이론의 교체가 일어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두 논변의 평행성은 지식의 진보와 이에 대해 저항하는 전통 이론의 보수적인 모습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다.

결국 인지적 자살 논변은 그것만으로는 제거주의의 논점에 대해 그리 설득력 있는 비판이 못되는 것 같다. 사실 인지적 자살 논변과 같이 자기 지시(self-referential) 진술의 역설적인 모습을 지적하는 논변은 철학사에도 여러 차례 등장했다.¹²⁾ 이러한 논변은 언뜻 보기에는 명쾌해 보이지만 공격하려는 입장의 핵심을 지적하진 않는 것 같기 때문에, 서로 상대방이 중요한 점을 놓치고 있다는 식의 비생산적인 공방에 빠질 우려가 있다.¹³⁾ 물론 이 경우 서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이 다르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함이 있다.¹⁴⁾ 따라서 이런 식의 제거주의에 대한 공략은 효과적이지 않다. 비판하려는 상대방이 인정하

는 전제를 바탕으로 논변이 이루어지면서도 그 논변의 귀결이 상대방의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보여줄 수 있다면, 보다 설득력있는 논변이 될 수 있다. 예컨대 어떤 입장 값이 어떤 입장을 그 전제로 삼고 있을 때 값에 대해 제대로 논박하려면, 그 전제인 율이 잘못된 것임을 보여 주거나, 그 전제가 제대로 된 것임을 인정하더라도 그로부터 값이 타당하게 귀결될 수 없음을 보여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그 전제에 대한 언급없이 그 귀결만을 문제 삼는 것은 그 비판의 대상자에게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를 허용하고 만다. 예컨대 자기가 인정할 수 없는 다른 전제로부터 자기를 비판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이다. 하지만 그렇다면 현대 과학철학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론 간의 불가통약성을 염두에 둘 때 전제가 서로 다른 두 이론 체계들 중 어떻게 하나가 다른 하나를 평가·비판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본다면 애초에 지향 심리학을 비판하는 데에서 출발한 제거주의의 주장 자체도 설득력이 없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¹⁵⁾

그래서 이 대목에서 제거주의의 전제가 될 수 있는 중요한 논점 한 가지를 지적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은 제거주의의 실재론적인 토대를 지적하는 것이다.¹⁶⁾ 제거주의가 상이한 전제를 가지고 있는 지향 심리학을 비판하는 중요한 논점 중 한 가지는 지향 심리학이 실재(reality)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한 거짓 이론이라는 것이다. 처칠랜드식 제거주의의 기본 입론을 그 실재론적인 토대를 보이는 방식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¹⁷⁾

- (P1) 최종 과학은 자연 세계에 내재하는 인과적 필연성과 그 필연성 속에서 인과적 역할을 담당하는 법칙적 속성을 지적해 준다.
- (P2) 우리가 '정신 현상'이라고 부르는 것을 설명해 주는 최종 과학은 바로 신경 과학이다.
- (P3) 따라서 신경 과학에 의해 입증되지 않는 '정신 현상'은 단순히 부수현상에 불과하다.
- (P4) 따라서 지향 심리학이 신경 과학에 의해 입증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순히 부수현상에 관한 이론일 뿐, 진정한 존재자에 관한 이론이 아니다.

[1] [그러므로] 신경 과학이 지향 심리학에 정당성을

12) 예컨대 상대주의에 대한 비판 등을 생각해 보자.

13) 예컨대 처칠랜드는 [6]에서 인지적 자살 논변이 그라이스 식의(Gricean) 의미론을 전제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pp. 21-2를 볼 것.

14) 나는 줄고 [1]에서, 정신 인과(mental causation) 문제에 관한 김재권과 데이비슨의 논쟁도 인과성의 문제에서 무엇이 중요하게 보는가의 차이에서 비롯한다고 주장하였다.

15) 그래서 필자는 줄고 [2]에서 제거주의를 실재론을 토대로 하는 존재론적 제거주의와 방법론적 제거주의의 두 가지 형태로 나누고 후자는 전자에 비해 설득력이 없다는 주장을 전개하였다.

16) 줄고 [2] 참조.

17) 이하의 입론은 줄고 [2]의 p. 268, p. 270에 나오는 두 입론을 하나로 묶은 것이다.

부여해 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지향 심리학은 거짓이다.

- [2] 신경 과학은 지향 심리학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데에 실패할 것이다.
- [3] 그러므로 지향 심리학은 거짓이며, 신경 과학에 의해 대체되어야 한다.

여기서 (P4)와 [2]에서 신경 과학이 지향 심리학을 입증하거나 정당성을 부여하지 못한다는 것은 지향 심리학이 신경 과학으로 환원될 수 없음을 말한다. 그렇다면 신경 과학으로 환원되지 않는다고 해서 왜 지향 심리학이 거짓이고 지향 심리학의 현상이 부수현상에 불과한 것일까? 이러한 제거주의의 강한 입장은 실재론을 기초로 해서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나의 생각이다.¹⁸⁾

이제 제거주의의 실재론적 전제를 염두에 두고 인지적 자살 논변을 다시 검토해 보자. 나의 요점은 다음과 같다. 인지적 자살 논변은 주장함의 조건으로서 믿음 등 명제 태도의 존재를 옹호하려는 의미론적인 논변인데 반해, 제거주의는 믿음 등 내용에 의해 정해지는 명제 태도는 법칙적 속성으로서 실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존재론적 논변이다. 그리고 여기서 존재자로서의 속성은 정신에서 독립되어 확정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 언어의 술어에서 유추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입장을 전제로 삼고 있는 제거주의에 대해 자연 언어에서 제시하는 상식적 범주를 부정하고 있다는 비판은 실효성있는 것이 못된다.

물론 인지적 자살 논변은 단순히 제거주의가 상식적 범주를 부정하고 있다는 것으로만 비판하려는 것은 아니다. 결국은 제거주의의 주장 자체도 자신이 스스로 부정하려 하고 있는 상식적 범주를 전제로 삼을 수 밖에 없다는 제거주의의 자기 모순을 지적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베이커가 지적한 3가지 문제들에 관해 앞의 2절에서 내가 제거주의의 관점을 바탕으로 구성해 본 대답들이 옳다면, 제거주의자가 자기 주장을 펴기 위해 반드시 자신이 부정하는 상식적 범주를 전제로 삼을 수 밖에 없다는 인지적 자살 논변은 정당하지 못하다. 처칠랜드가 제시한 반생기론에 대한 비판과의 유추가 베이커의 비판과는 달리 정당하다면, 인지적 자살 논변은 지식의 발달과 변화에 관해 지나치게 보수적인 태도를 바탕에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비트겐슈타인의 사다리 비유를 여기에도 적용시킬 수 있지 않을까?

앞에서 본대로 베이커는 제거주의가 명제 태도의 대안들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러나 과

연 제거주의가 아직 대안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이 그 자체만으로 그것의 정당한 비판의 이유가 될 수 있을까? 이러한 지적 역시 제거주의가 실재론을 토대로 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실재론에서 강조하는 존재론적 측면의 핵심은 우리의 정신으로부터 존재 세계가 독립해서 존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그것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현재 갖고 있느냐 여부는 실재론자의 입장에선 처음부터 논의에서 배제하고 고려하지 않으려는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나는 인지적 자살 논변이 언뜻 보기보다는 제거주의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 논변은 제거주의의 주장 자체가 자신이 부정하려는 명제 태도를 전제로 하고 있다고 지적하지만, 제거주의의 진짜 전제가 무엇인지를 제거주의자의 입장에서 이해하려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제거주의를 비판할 길은 전혀 없는가? 결국은 제거주의의 전제인 실재론을 문제삼는 수 밖에 없다고 본다. 실재론을 거론함이 제거주의의 논의 맥락인 심신 이론의 틀을 벗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거주의는 실재론을 전제로 해서만 의미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입장인 것이다.¹⁹⁾²⁰⁾

참고 문헌

- [1] 백도형(1995A), "A 환원, 속성, 실재론"(『哲學』 제 43집 1995 봄호, 한국철학회)
- [2] 백도형(1995B), "제거주의와 실재론" (『哲學研究』 제 36집 1995 봄호, 철학연구회)
- [3] 백도형(2001), "심신 유명론" (『철학연구』 54집 (2001 가을, 철학연구회)
- [4] Baker, L. R.(1987), *Saving Belief* (Princeton University Press)
- [5] Baker, L. R.(1988), "Cognitive Suicide" in : *Contents of Thought* (edited by R.H. Grimm & D.D. Merrill, University of Arizona Press, 1988)
- [6] Churchland, P.(1981), "Eliminative materialism and the

19) 사실 나는 제거주의 뿐 아니라 심신 문제와 관련된 모든 문제들의 핵심 근거에는 실재론 특히 보편자 실재론의 문제가 밀접하게 자리잡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나의 생각에 관해서는 줄고 [1], [2], [3] 등을 참조하기 바란다.

20) 이 논문은 원래 2002년 5월 18일에 부산대학교에서 개최되었던 제 16회 한국인지과학회 춘계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함께 토론에 참여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 드린다. 또한 이 논문의 초고를 두고 한 이후 제시된 심사위원의 지적이 내용을 보완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드린다.

18) 줄고 [2], pp. 267-73을 참조.

Propositional Attitudes" rp. in : Churchland P.(1989)
A NEUROCOMPUTATIONAL PERSPECTIVE (The
MIT Press)

[7] Churchland P.(1988), *Matter and Consciousness: A
Contemporary Introduction to the Philosophy of Mind*
(2nd ed., The MIT Press, 『물질과 의식: 현대심리철학
입문』 석봉래 옮김, 서광사 1992)

[8] Jackson, F.(1982), "Epiphenomenal Qualia" rp. in : *Mind
and Cognition* (W. Lycan ed., 1990, The MIT Press)

[9] Kitcher, P.(1984), "In Defense of Intentional Psychology"
in : *Journal of Philosophy* (1984. 2)